

가족지지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연구 분석

박신애* · 강경숙** · 정미영*** · 차남현* · 김순영**

I. 서 론

인간은 환경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이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적인 조직망에서의 상호작용은 조직망 내에서 개인의 통합감을 확고하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Wineman, 1990).

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질병과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단위로, 가족내에 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은 의학적 처방의 수행을 포함한 환자간호 역할을 담당하게 됨은 물론 가족생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Gillis et al., 1989; Litman, 1974). 특히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달리 가족주의 가치가 지배적이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밀접하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가족구성원이 상주하면서 간호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등 가족구성원의 질병에 대한 책임을 사회보다는 가족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지지 역시,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제가 가장 좋은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인정된 사랑과 지지를 교환하는 주요기능을 의미한다(최, 1993). 또한, 가족체계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된 개인을 정서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방패나 완충역할을 하므로써 개인의 위

기나 변화에 적응을 도와주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가족지지 행위란 환자에게 의미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환자를 돌보아주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게 해주고, 환자가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에 속한다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정보이다(Cobb, 1976).

오늘날 간호학에서도 가족지지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개인의 건강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족구성원의 질병은 가족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통해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Jhonson, 1988). 또 많은 문헌들은 간호사가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간호학에서 가족은 개인의 환경으로 혹은 수혜자로 개념화되었고, 이것이 가족간호실무를 이끌어간다(Gilliss, 1991).

따라서 간호의 궁극적 목적은 대상자와 가족 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서 건강한 삶을 공동으로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환자개인뿐 아니라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환자가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돕고 안녕을 증진시켜주며, 나아가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돌보는 활동이 원만하게 행해질 수 있는 통합된 간호전략의 개발이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족지지에 관한 간호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여 연구경향 및 중재효과를 알아본 후 간호실무에서 가족지지의 이해 및 효율적인 가족지지를 시행하는데 기여하고자 연구를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 목포과학대학 간호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198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간호학자에 의해 연구된 가족지지에 관한 논문을 표본으로 하였다. 전남대학교 보건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간호학 관련 학술자료를 검색하여 가족지지가 논문제목에 나타난 논문들을 목록화 한 뒤 영문 혹은 국문초록 또는 논문원본을 찾아 해당개념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73편의 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논문의 분석

선정된 논문을 가족지지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학위, 비학위 논문별, 연구유형 및 설계, 연구대상자, 가족지지 관련개념과 간호중재별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수행시기 :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 2) 학위, 비학위논문 : 학위논문, 비 학위논문으로 분류하고, 비 학위논문의 경우 게재 학술지별로 다시 구분하였다.
- 3) 연구유형 및 설계 : 연구유형은 요인추구, 요인관련, 상황관련, 상황생성형으로 분류하고 설계는 실험, 비 실험, 질적 연구로 구분한 후 비실험 연구는 조사, 방법론적, 문헌, 도구개발, 사례연구로 구분하였다.
- 4) 연구대상자 : 정상인과 환자로 나누었다
- 5) 가족지지 관련개념 : 연도별로 연구에서 나타난 가족지지와 관련된 개념을 분석하였다.
- 6) 간호중재 : 실험연구에서 간호중재로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기간, 식이요법, 가정간호, 당뇨병교육, 지지적 간호중재, 가족참여 환자교육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연도별 연구유형 분석

연도	연구유형	요인분리형 (실수/백분율)	요인관련형 (실수/백분율)	상황관련형 (실수/백분율)	상황생성형 (실수/백분율)	계
1980-1984		-	1(1.4)		1(1.4)	2(2.8)
1985-1989		1(1.4)	12(16.4)		1(1.4)	14(19.2)
1990-1994		1(1.4)	22(30.1)		1(1.4)	24(32.9)
1995-1999		7(9.6)	21(28.7)	1(1.4)	4(5.4)	33(45.1)
계		9(12.4)	56(76.6)	1(1.4)	7(9.6)	73(100.0)

1. 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

가족지지 연구 논문 73편 중 박사학위논문 3편(4%), 석사학위논문 45편(62%), 비학위논문 25편(34%)이었으며, 연도별로는 84년 이전이 2편(3%), 85-89년 15편(20%), 90-94년 26편(36%), 95년 이후 30편(41%)으로 점차 증가추세로 나타났는데(표 1), 이는 Lansberry와 Richards(1992)가 간호에서 가족단위는 수혜자로 개념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간호학에서 가족이론에 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4년 이후 가족간호에 대한 출판물이 증가됨에 따라 가족에 관련된 개념인 지지연구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실수/백분율
논문의 종류	박사학위논문	3(4)
	석사학위논문	45(62)
	비학위논문	25(34)
	계	73(100)
연도	1980-1984	2(3)
	1985-1989	15(20)
	1990-1994	26(36)
	1995-1999	30(41)
	계	73(100)

2. 연도별 연구유형 분석

이은옥 등(1991)이 분류한 연구유형에 따라 요인분리형 9편(12.4%), 요인관련형 56편(76.6%), 상황관련형 1편(1.4%), 상황생성형 7편(9.6%)으로 나타났다(표 2). 김과 이(1995)의 학위논문 분석에서는 요인추구형 58.0%, 요인관련형 29.1%, 상황관련형 11.4%, 상황생성형 1.5%으로 나타나 주로 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기

술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장(1998)의 연구에서도 요인추구형 34.1%, 요인관련형 61.3%, 상황관련형 6.5%, 상황생성형 9.7%로 나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바, 가족지지가 환자나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변수가 어떤 것인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설계의 분석

연구설계는 실험연구, 비실험 연구 및 질적 연구로 분류해 보았으며, 실험연구는 7편(9.6%), 비실험 연구는 66편(90.4%), 질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장(1998)의 가족연구분석에서는 실험연구 6.1%, 비실험연구 89.7%, 질적연구 4.2%였으며, 김과 이(1995)의 학위논문 분석에서는 실험연구 10%, 비실험연구 89%, 질적연구 0.2%였고, 오 등(1992)과 전 등(1994)의 연구에서도 비실험 연구 중 서술 및 탐색연구가 각각 74.1%, 85.9%를 차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에서도 연구설계 유형이 아직까지는 서술과 설명수준의 비실험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문유형별로는 박사학위논문은 실험연구만 3편

(4.1%)이었고, 석사학위논문은 실험연구 1편(1.4%), 비실험 연구 44편(60.3%)이었으며, 비학위 논문은 실험연구 3편(4.1%), 비실험 연구 22편(30.1%)로 나타났다(표 3-1). 장(1998)의 연구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은 실험연구 25%, 비실험 연구 45%, 질적 연구 30.0%이었고, 석사학위논문은 실험연구 3.8%, 비실험 연구 95.5%이었으며, 질적연구 0.8%이었고, 비학위 논문은 실험연구 4.8%, 비실험 연구 91.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석사학위논문이나 비학위 논문이 주로 비실험 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나 장(1998)의 연구와 본 결과의 백분율의 차이는 장(1998)이 각 학위별 100%로 환산하였다면 본 연구는 학위, 비학위를 총괄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백분율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실험 연구를 조사연구, 상관성 연구, 문헌연구, 도구개발, 방법론적 연구로 나누었는데, 사례연구 0.5%로 나타났는데, 아직은 간호학 연구가 조사 및 상관성 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보인 84년 이전에는 상관성 연구 1편(1.5%), 85-89년에는 조사연구 1편(1.5%), 상관성 연구 12편(18.2%), 방법론적 연구 1편(1.5%), 90-94년에는 조사연구 3편

〈표 3-1〉 연도별, 학위유형별 연구설계 분석

	실험연구	비실험연구	질적연구	계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실수/백분율
1980-1984	1(1.4)	1(1.4)	-	2(2.8)
1985-1989	1(1.4)	14(19.2)	-	15(20.5)
1990-1994	1(1.4)	25(34.2)	-	26(35.6)
1995-1999	4(5.4)	26(35.6)	-	30(41.1)
계	7(9.6)	66(90.4)	-	73(100.0)
박사학위논문	3(4.1)	-	-	3(4.1)
석사학위논문	1(1.4)	44(60.3)	-	45(61.7)
비학위 논문	3(4.1)	22(30.1)	-	25(34.2)
계	7(9.6)	66(90.4)	-	73(100.0)

〈표 3-2〉 연도별 비실험연구 유형

연도	비실험 연구	조사연구 (N/%)	상관성연구 (N/%)	문헌연구 (N/%)	도구개발 (N/%)	방법론적 연구(N/%)	계
1980-1984	-	-	1(1.5)	-	-	-	1(1.5)
1985-1989	1(1.5)	-	12(18.2)	-	-	1(1.5)	14(21.2)
1990-1994	3(4.6)	-	22(33.3)	-	-	-	25(37.9)
1995-1999	5(7.6)	-	21(31.8)	-	-	-	26(39.4)
박사학위논문	-	-	-	-	-	-	-
석사학위논문	4(6.1)	-	37(56.0)	-	-	1(1.5)	42(63.6)
비학위논문	5(7.6)	-	19(28.8)	-	-	-	24(36.4)
계	9(13.7)	-	56(84.8)	-	-	1(1.5)	66(100.0)

(4.6%), 상관성 연구 22편(33.3%), 95년 이후에는 조사연구 5편(7.6%), 상관성 연구 21편(31.8%)으로 나타났다(표 3-2).

장(1998)의 연구에서는 조사연구 92.2%, 문헌연구 4.7%, 도구개발 1.6%, 방법론적 연구 1.0%, 사례연구 0.5%로 나타났는데 아직은 간호학 연구가 조사 및 상관성 연구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보인다.

학위, 비학위별로는 석사논문이 조사연구 4편(6.1%), 37편(56.0%), 방법론적 연구 1편(1.5%)이었고, 비학위 논문은 조사연구 5편(7.6%), 상관성 연구 19편(28.8%)이었다(표 3-2).

4.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실험연구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상자 종류로는 관절염, 정신질환, 결핵, 판상동맥질환 및 고혈압 환자 등이었으며, 조사연구는 환자 5편(6.8%), 일반인 4편(5.5%)이었고, 상관성 연구는 환자 51편(69.9%), 일반인 5편(6.8%)이었는데 주로 대상자 종류로는 혈액 투석 9편, 입원환자와 암환자 각각 5편, 노인환자 4편, 편마비 3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이고 청소년이 2편이었다(표 4).

Fisher 등(1985)은 가족연구를 위한 자료를 개인적, 관계적 및 상호작용적 자료로 나누었는데 개인적 자료는

가족구성원 한사람으로부터 수집되는 것이며, 관계적 자료는 둘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이고, 상호작용적 자료는 부분의 합과는 다른 전체로서의 가족 단위 기능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말하는데 본 연구는 주로 관계적 상호작용적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바 대상자의 87.7%가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지지를 연구한 것으로 보아 지지라는 개념은 버티는 것이라는 개념에서처럼 일반인보다는 문제가 발생할 때 가족구성원의 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5. 상관성 연구의 관련개념별 분포

비실험 연구의 유형인 상관성 연구에서 다른 개념들을 살펴보면, 삶의 질 12편(12.5%), 불안과 우울 각각 8편(8.6%), 자존감 5편(5.2%), 희망, 역할행위, 치료지시 이행, 자가간호활동, 건강상태는 공히 4편(4.2%)으로 나타났다(표 5).

같은 종류의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연구 분석을 시도한 장(1998)의 연구에서는 가족지지가 27.6%였으며, 고등(1994)의 학위논문의 주요어 분석에서 1990년 이후 가족지지의 개념이 3순위를 나타냈고, 전 등(1994)의 연구에서 가족개념이 연구주제로 증가되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표 4〉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석

	환자 (실수/백분율)	일반인 (실수/백분율)	계
실험연구	7 (9.6) : 결핵1, 판상동맥질환1, 관절염2, 정신질환2, 고혈압1		7 (9.6)
조사 연구	5 (6.8) : 암환자2, 노인환자1, 당뇨환자1, 결핵환자1	4 (5.5) : 노인 3, 주민1	9(12.3)
상관성 연구	51(69.9) : 중환자1, 정신질환1, 노인환자4, 편마비3, 만성관절염1, 혈액투석9, 당뇨2, 암 5, 간경변증2, 입원5, 뇌졸중2, 하반신 마비1, 정신박약아1, 폐결핵1, 신장이식1, 결장루 보유자2, B형 간염1, 기혼여성 환자1, 만성 질환자 2, 수술전 환자2, 심장 질환자1, 청각장애청소년1, 유방암 환자1, 섬유조직염 환자1	5(6.8):노인3, 청소년 2	56(76.7)
문헌연구 도구개발 방법론적 연구 질적연구	1 (1.4) :폐결핵1		1 (1.4)
계	64(87.7)	9(12.3)	73(100.0)

6.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는 73편의 논문 중 7편으로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 식이요법, 가정간호, 당뇨교육, 지지적 간호중재, 가족참여 환자교육 및 저항운동 프로그램으로 거의 모두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으나 저항운동 프로그램은 부정적 결과를 보였으며,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은 중립적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중재 유형들은 대부분 대상자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 지역사회 중심사업인 가정간호나 간호사업을 중재로 한 것이었다(표 6).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가족구성원 전체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적정기능수준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도록 가족지지를 위한 좀더 다양한 중재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8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간호학자에 의해 연구된 가족지지에 관한 논문을 표본

으로 하였다. 전남대학교 보건정보센터에서 지원하는 간호학 관련 학술자료를 검색하여 가족지지가 논문제목에 나타난 논문들을 목록화 한 뒤 영문 혹은 국문초록 또는 논문원본을 찾아 해당개념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73편의 논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정된 논문을 가족지지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학위, 비학위 논문별, 연구유형 및 설계, 연구 대상자, 가족지지 관련개념과 간호중재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

가족지지 연구 논문 73편 중 박사학위논문 3편(4%), 석사학위논문 45편(62%), 비학위논문 25편(34%)이었으며, 연도별로는 84년 이전이 2편(3%), 85-89년 15편(20%), 90-94년 26편(36%), 95년 이후 30편(41%)으로 나타났다.

2. 연도별 연구유형 분석

〈표 5〉 상관성 연구의 가족지지 관련개념

관련개념	실수/백분율	관련개념	실수/백분율	관련개념	실수/백분율	관련개념	실수/백분율
희망	4(4.2)	인지도	1(1.0)	지식	3(3.1)	질병개념	1(1.0)
삶의 질	12(12.5)	의존성	2(2.1)	정신건강	3(3.1)	건강상태	4(4.2)
역할행위	4(4.2)	자가간호역량	2(2.1)	스트레스	2(2.1)	자존감	5(5.2)
절망감	3(3.1)	기능회복	1(1.0)	건강통제	1(1.0)	자아개념	1(1.0)
사회적 적응	3(3.1)	우울	8(8.6)	위 성격		신체상	1(1.0)
불안	8(8.6)	건강증진행위	1(1.0)	여가활동	1(1.0)	건강지각	1(1.0)
치료지시 이행	4(4.2)	자가간호활동	4(4.2)	간호	2(2.1)	건강성격	1(1.0)
삶의 만족	2(2.1)	무력감	3(3.1)	가족기능	1(1.0)	고독감	1(1.0)
기능장애	1(1.0)	생화학적지수	1(1.0)	자기효능감	2(2.1)	증후	1(1.0)
신체활동장애	1(1.0)					계	96(100.0)

〈표 6〉 간호중재별 연구결과

간호중재	연구결과	연구결과			계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				1(14.28)	1(14.28)
식이요법		1(14.28)			1(14.28)
가정간호		1(14.28)			1(14.28)
당뇨교육		1(14.28)			1(14.28)
지지적 간호중재		1(14.28)			1(14.28)
가족참여 환자교육		1(14.28)			1(14.28)
저항운동프로그램			1(14.28)		1(14.28)
계		5(71.4)	1(14.28)	1(14.28)	7(100.0)

이은옥 등(1992)이 분류한 연구유형에 따라 요인분리형 9편(12.4%), 요인관련형 56편(76.6%), 상황관련형 1편(1.4%), 상황생성형 7편(9.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설계의 분석

연구설계는 실험연구, 비실험 연구 및 질적 연구로 분류해 보았으며, 실험연구는 7편(9.6%), 비실험 연구는 66편(90.4%), 질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문유형별로는 박사학위논문은 실험연구만 3편(4.1%)이었고, 석사학위논문은 실험연구 1편(1.4%), 비실험 연구 44편(60.3%)이었으며, 비학위논문은 실험연구 3편(4.1%), 비실험 연구 22편(30.1%)로 나타났다.

또한 비실험 연구를 조사연구, 상관성 연구, 문헌연구, 도구개발, 방법론적 연구로 나누었는데, 84년 이전에는 상관성 연구 1편(1.5%), 85-89년에는 조사연구 1편(1.5%), 상관성 연구 12편(18.2%), 방법론적 연구 1편(1.5%), 90-94년에는 조사연구 3편(4.6%), 상관성 연구 22편(33.3%), 95년 이후에는 조사연구 5편(7.6%), 상관성 연구 21편(31.8%)으로 나타났다. 학위, 비학위별로는 석사논문이 조사연구 4편(6.1%), 37편(56.0%), 방법론적 연구 1편(1.5%)이었고, 비학위논문은 조사연구 5편(7.6%), 상관성 연구 19편(28.8%)이었다.

4. 연구설계별 대상자 분포

실험연구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대상자 종류로는 관절염, 정신질환, 결핵,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 환자 등이었으며, 조사연구는 환자 5편(6.8%), 일반인 4편(5.5%)이었고, 상관성 연구는 환자 51편(69.9%), 일반인 5편(6.8%)이었는데 주로 대상자 종류로는 혈액 투석 9편, 입원환자와 암환자 각각 5편, 노인환자 4편, 편마비 3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이고 청소년이 2편이었다.

5. 상관성 연구의 관련개념별 분포

비실험 연구의 유형인 상관성 연구에서 다룬 개념들을 살펴보면, 삶의 질 12편(12.5%), 불안과 우울 각각 8편(8.6%), 자존감 5편(5.2%), 희망, 역할행위, 치료지시행, 자가간호활동, 건강상태는 공히 4편(4.2%)으로

나타났다.

6. 실험연구의 간호중재

실험연구의 간호중재는 73편의 논문 중 7편으로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 식이요법, 가정간호, 당뇨교육, 지적 간호중재, 가족참여 환자교육 및 저항운동 프로그램으로 거의 모두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으나 저항운동 프로그램은 부정적 결과를 보였으며, 정신보건재활간호사업은 중립적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겠다.

1. 연구설계 유형이 비실험 연구인 상관성 연구에 많은 비중을 보이므로 이론의 기능 중 현상을 예측하고 처방할 수 있는 실험연구와 대상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2. 한국가족의 독특한 특성에 맞는 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중재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Ko, O. J., Kim, S H, Kim H. g., Lee K. J., Lee Y. S. (1994). A Statistical Study on the Key Words in the Titles of Nursing Related These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4(1), 58-69.
- Kim, M. J., Lee M. S., Lee, M. H., Lee, H. I. (1994). 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on Master's and Doctoral Theses in Nursing.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4(1), 96-114.
- Oh, K. S., Sin, H. S., Kim H. S. (1992). Nursing Research Issues and Trends : Views from Korea. *The Korea Nurse*, 31(3), 76-87.
- Lee, E. O., Lee, E. J., et al. (1992).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22(3) p.271-296
- Jang, S. O.(1998). An Analysis of Family Nursing Research in Korea. *The Journal of*

- Nurses Academic Society*, 28(1). 104-116.
- Chon, S. J., Hong K. P., Yang W. Y., Lee J. J., Lee B. S., Kim J. J., Hur H. K., Yim J. Y., In J. Y.(1994). An Analysis of master's and Doctoral Thesis in Nursing -Centered on a Nursing, an Education, and a Public Health Graduate College. *The Korea Nurse*, 33(2), 45-58.
- Choi, Y. H. (1983). *지리적 간호중재가 가족지지 행위와 환자역할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Fisher, L., Kokes, R. F., Ransom, D. C., Phillips, S. L., Rudd, R.(1985). Alternative strategies for creating "relational" Family data. *Family process*, 24. 213-224.
- Gilliss, C. L. (1991). family nursing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Image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2, 19-22.
- Gilliss, C. L., Highly, B. L., Robert, B. M., Martinson, I. M. (1989). *Toward a Science of family nursing*. Menlo Park, CA: Addison-Wesley, 37-73.
- House, J. J. (1981). *Work stress &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Jhonson, R. (1988). *Family developmental theories*. Stanhope, M., Lancaster, J.(Ed). Community health Nursing, Mosby, 352-370.
- Lansberry, C. R., Richards, E. (1992). Family nursing practice paradigm perspective and diagnostic approache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15, No2. 66-75.
- Litman, T. J. (1974). The family as a basic unit of health and medical care: A social-behavioral overview, *Soc Sci Med*, 8, 495-519.
- Wineman, N. M. (1990). Adaptation to multiple-sclerosi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functional disability, and perceived uncertainty. *Nursing Research*, 39(5), 294-299.
- Abstract -
- ### Family Support : a Review of Nursing Literature on its Trends and Implementations
- Park, Shin Ae* · Kang, Kyung Sook**
Jeong, Mi Young*** · Cha, Nam Hyun*
Kim, Soon Young**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related to family support and to provide an effectiv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by conducting a review of the Korean nursing literature from 1980 to 2000. A total of 73 studies were analyzed with the following results.
- 1)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family support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1984, and 77% of those were conducted in the 1990s. 48 studies, 65% of those analyzed, were degree-based research including 4 doctoral theses (4%) and 45 master's theses (62%).
 - 2) Based on the objective frame of study types developed by Lee et al. (1991), the types of studies were analyzed: 56 studies, 76.6% of those reviewed, belonged to factor-relating; 9 studies (12.4%) belonged to factor-isolating; 7 studies (9.6%) belonged to situation-producing; and only 1 study (1.4%) belonged to situation-relating research, respectively.
 - 3) In terms of research design, most studies

*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Dep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 Dept. of Nursing, Mokpo Science College

of analyzed (90.4%) were conducted by non-experimental design, and 7 studies (9.6%) were conducted by experimental design. But, qualitative research related to family support was not found.

4) In terms of research subjects, target populations of experimental studies were patients with arthritis, mental disorder, tuberculosis, coronary artery disease and hypertension. In correlational studies, 51 studies, 69.9% of those analyzed, were conducted to patients with renal failure, cancer and hemiplegia, and 5 studies (6.8%) were conducted to aged people and adolescents.

5) Study concepts used in correlational studies were quality of life, anxiety and depression, self-esteem, hope, role behavior, compliance and self-care activities. The quality of life was most often used among studies with 12.5% of those analyzed.

6) Nursing interventions, including diet therapy, family involving education and supportive care, used in experimental studies mostly showed positive effects on client involvement and home health improvement. However, the nursing interventions of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and resistance exercise showed neutral and negative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 that more empirical research including experimental or qualitativ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ctively to improve nursing practice related to family support. Also, to promote more diverse nursing interventions, a family assessment tool especially for Korean families needs to be developed.

Key words : Family support, Research analysis